東亞日報
夕刊
八月一日(木)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黃泳模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伊에紛爭處理特別理事會極度의緊張裡開會

伊議事範圍制限主張 英에와伊間論爭展開

英佛斡旋으로妥協方式起草 更히一日再開키로決定

佛라발首相 英이든無任相 伊아로이지男 露리트비노브議長

【電通제네바三十一日發至急報】伊、에紛爭에 關한 第二次聯盟特別理事會는 三十一日午後五時十五分(日本時間一日午前一時十五分)軍縮會館에서 非公開로 開會되어 伊、에紛爭의 和協手段繼續을 可能케하는 方式을 起草하기로 決定하엿다

【同盟제네바卅一日發】伊、에紛爭協定을 爲하야 臨時召集된 國際聯盟特別委員會는 三十一日午後五時十五分(日本時間一日午前一時十五分)부터 約一時間半동안 리트비노브議長司會下에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고 伊國代表 아로이지男의 議事範圍制限留保宣言과 에치오피아代表 에재博士、英國代表 이든兩氏의 制限反對表明을 싸고 俄然論爭이 展開되엿는데 라발佛首相은 그사이를 斡旋하야 結局兩當事國까지도 和協委員會의 議事繼續에는 反對치 안는다는것이 判明되엇으므로 이一點을 基礎로 英佛代表間에 今明日中에 妥協方式을 起草하야 伊、에兩代表의 諒解를 얻은後 一日午後五時 再次理事會를 開催하고 이의 對策을 會議하기로 意見이 一致하고 이에 理事會의 第一日을 마치엇다

散會後四人會議

一九〇六年의條約을運用 和協方式繼續에一層努力

伊國受諾이면介入延期

理事會散會後 即時 리트비노브議長、이든英無任相、라발佛外相、아브노르事務總長의 四人會議에 옮겨 深更다시 妥協方針을 講究하엿는데 이는 英佛伊를 包含한 一九〇六年의 條約을 巧妙히 運用하야 和協委員會의 事業繼續에 從來보다도 一層强力한 權限을 加味하려는 意圖下에 起草되어 特別理事會決議의 形式을 採擇하기로 되엇다

【同盟제네바卅一日發】理事會를 앞두고 英國代表이든氏를 中心으로 英佛伊에 代表間에 多角的 私的會談이 開始되엇는데 傳하는데依하면 英國은 一九〇六年에치오피아에關한 英佛伊三國條約에 基하야 伊에 紛爭의 解決을 圖할 意向으로 私的會議에 잇어 今後、週間假量의 사이에 英佛兩國이 伊太利를 說得하고 平和的解決을 受諾케할 豫想이어서 聯盟의 直接介入을 延期케하려하고 잇는듯하다

英佛兩國代表 和協方式起草

和協交涉期間中 戰爭手段에不訴

英佛監視下에和協交涉圖謀 伊代表에提示한內容

[illegible]

一、石交涉의 繼續期間中 戰爭手段에 訴하지안는 相互的義務
一、再和協交涉期間中 [illegible]
一、和協委員會의 第五 和協委員의 選任
一、一九〇六年 條約調印國 及 에치오피아의 早速한 交涉의 開始

一、伊에兩國政府는 理事會의 決定에 基하야 今後繼續하야 和協手續을 繼續할事
一、和協手續이 進捗하고 잇는동안 [illegible]

伊에兩代表 長時間密議

【제네바三十一日發聯合】伊太利代表 아로이지男은 三十一日後 에치오피아代表에게 會見을 要하야 長時間密議하엿다 和協委員會의 再開問題에 關하야 懇談한것이라고 傳한다

英佛伊에四國 小委員會設置

一九〇六年의條約에基하야 紛爭을全面的으로審理

【로마三十一日發聯合】權威잇는 方面에依하면 英國無任所相 이든氏가 巴里에서 라발首相과 會談한結果 理事會開會에 英、佛、伊、에의 四國代表로 構成되는 小委員會를 設置하고 紛爭의解決에 當하도록하고 그 案은 小案이 協議되엇는데 小案의內容은 即時 伊國政府에도 通達하엿는데 그內容은

一、一九〇六年의 條約에 基하야 英、佛、伊、에 四國代表로 小委員會를 設置하야 紛爭의 全面的審議를 行함
一、伊國政府는 右審議가 行하는 동안에는 戰爭의 行爲를 取하지 안흘것을 約束함

이라는案인데 果然 伊國政府가 이를受諾하는與否는 아직 不明하나 聯盟加入國들은 이것이 實現되면 커다란紛爭으로부터 손을떼고 關係國에 만責任을 지게되므로 크게 歡迎하고잇는 模樣이다

一、和協委員會에 對하여서는 中立國의 第五委員을 任命하고 委員會는 九月二日까지에 報告할事
一、英佛兩國政府는 一九〇六年八月의 三國條約에 基하야 和平解決을 圖할事

理事會散會後 콤뮤니케發表

【제네바三十一日發聯合】理事會第一日의 會議後 左의聲明書가 發表되엇다 特別理事會는 三十一日午後 非公開로 開會되어 伊에兩國紛爭調停案을 上程하야 무솔리니首相의 和協手段續行案을 協議하고 明一日後 公開會議를 續行할터인데 그國際紛爭의 續行方式을 協議하고저努力할터이다

에國際管理說 一部의誤傳

【電通런던三十一日發】[illegible]

米參戰回避案 多少의修正을未免

[illegible]

在에英公使館 附部隊增員

【倫敦三十一日發】英國政府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閣議를 開催하고 現在 英人一名 兵人二十名으로된 在에치오피아公使館附部隊에 印度兵을 四十名追加하기로 決定하엿다

【워싱톤三十日發聯合】米國政府는 一九三六年末 워싱톤條約의 失效를 待하야 北은 알류시안列島、南은 민위이島에 이르는 太平洋上에 點在한 島嶼에 海軍根據地 又는 空軍施設을 新設하고 洋上의防備强化를 決定하엿는데 海軍長官스와손氏는 三十一日午後 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서 以上 海軍當局의 方針을 確認하고 如左히言明하엿다

太平洋上島嶼의 防備施設强化

既定計劃대로建艦促進豫定 米海軍長官의言明

워싱톤海軍條約의 失效와 同時 各海軍國政府는 海軍擴張工作에 邁進할方針이라 이에對抗하고저 海軍省에서는 太平洋上의 島嶼의 防備施設을 强化하고 既定計劃에 基한 海軍建造를 促進할豫定이다 太平洋上 防備施設에對하여서는 워싱톤條約第十九條에잇어 制限하고잇는 本國에接近한島嶼 布哇諸島以外의 太平洋上에잇는 多數島嶼에對한要塞 海軍根據地의 現狀維持는 워싱톤條約의效果가 繼續되는한 右制限도 自然撤廢될터이다 防備施設잇는 島嶼以外의 島嶼에도 要塞를 新設하는것도 考慮되어잇다 特히 太平洋의防備施設은 米國政府의 傳統的方針으로서 워싱톤會議以前부터의 懸案인데 워싱톤條約으로 一時中絶하엿든데不過하다 但 米國政府는 끝까지 워싱톤條約을 嚴守하고 太平洋上의 海軍根據地强化도 워싱톤條約의 失效를 待하야 비롯오 着手할豫定이다 다시 記者團으로부터 現在 米海軍兵力은 比律賓에 [illegible]

에軍의近代式側面

에치오피아 兵隊들은 구식을쓰지안는다. 그러나 歐羅巴에서 輸入한 兵器와 近代化는 組織하다(左) 鐵兜의 다리를 自己의 兩足을 꼭누르고 잇는것은 조금異常하게도 보인다.(下) 高射砲를 쏘는데도 亦是 다리로 바치고잇다(下左) 代表的인 騎兵은 騎兵이나 亦是 제발인것은 조금우습다.

對蘇方針確立次 滿洲國外交部會議

外交關係의重大化로

【新京三十一日發聯合】滿洲國外交部에서는 最近의 對蘇外交의 重大化에 鑑하야 米曲、五日頃 外交部에 部內會議를 開催하고 對蘇外交根本方針의 確立을 期하기로 되엇다 外交部에서는 어데 本會議를 爲하야 在接關係機關인 哈爾賓外交部特派員 及 滿洲里、黑河、綏芬河 三辦事處 各主任에 對하야 招集電을 發하엿다

滿洲國政府 鑛業法公布

【新京一日發聯合】滿洲國政府는 一日正午에 鑛業法百六條 及 關係法規를 公布하고 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다 同時에政府는 鑛業會社法을 公布하고 即日實施하엿다

正式聲明을 政府에要求

軍部의態度强硬

【東京電話】[illegible]

機關說字句도使用 重大意義를闡明

政府의國體明徵聲明

【東京電話】政府의 國體明徵에 關하야서는 [illegible]

國體明徵에關한 政友議員總會

[illegible]

商工省昨年度豫算

[illegible]

小冊子問題 一日中에發布 處分

[illegible]

司法處分延期乎 誤解로回避次

[illegible]

對日政策으로 岐路에立한蔣氏

歸京後左右間表明?

【南京一日發聯合】[illegible]

滿鐵總裁에 松岡氏確定

關東軍外交顧問兼任

【東京電話】政府는 滿鐵三十一日에 林總裁가 正式辭表를 提出하는 同時에 [illegible]

後任滿鐵總裁는 宇佐美氏有力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線路上浸水七尺 復舊工事進行難

京義線開通은三日에나

昨夜부터晴天、漸次減水中

【本社特派員徐廷根發電】 신의주 시가는 압록강의 증수로 인하야 오매비들의 침수상황은 三十一일밤부터 비로소 나가기 시작하야 지금 상태로는 복구공사를 진행하기가 여간 곤란이아니다.

선로의 침수는 최고七척, 최저四척으로 금一일의 감수상태를 보면 午前零時—二時 十三糎, 二時—四時 十四糎, 四時—六時 十三糎로서 금일 오전七시부터야 겨우 복구공사에 착수하야 一백수十명인부가 출동하엿다.

그러나 아직도 복구개통까지에는 二、三일걸릴 모양이어서 아무리 속히하여도 三일부터나 개통될 모양이다.

(新義州)기타로 六百명을 구출하엿고 청성면(靑城面)은 고수에 피난중으로 위험이없다.

增水의不安은解消

鴨江水位十五尺을上下

【新義州特派員發電】 압록강은 어제밤부터 서서히 감수되기 시작하야 오늘새벽 一시에는 十四척八촌으로 내려갓고 오전三시에는 빗물때문에 도로 十五척 늘엇으나 다시 감수하기 시작하엿다.

이이상은 더증수할 우려는없어 이번수해민의 불안은 해소되엇는데 감수상황은 이러하다.

午前三時	十五尺四寸	
同 四時	同	七寸
同 五時	同	五寸
同 六時	同	三寸
同 七時	同	一寸

柳草島罹災民 六百名은救出

判明된死亡者는六人

家屋被害七千五百十七戶

그러고 침수가옥수에는 신의주부내 유초도(柳草島)는 ... 경찰부조사에 의하면 三十一일 오후九시현재에 평북관내의 수해상황은 사람의 사망이 신의주(新義州)에서 六명으로 판명되엇다하며 피해가옥은 의주(義州)에 二백五十四호, 용천(龍川)에 一백二十호, 신의주부내에 三천五백여호 ... 가옥의 피해는 총계七천五백十七호에 달하엿다. 침수가옥수에는 신의주부내 유초도(柳草島)는 ... 전부 침수되엇다.

死傷者七十二人

家屋被害萬五千戶

京畿、江原、黃海 三道의水害

昨日現在警務局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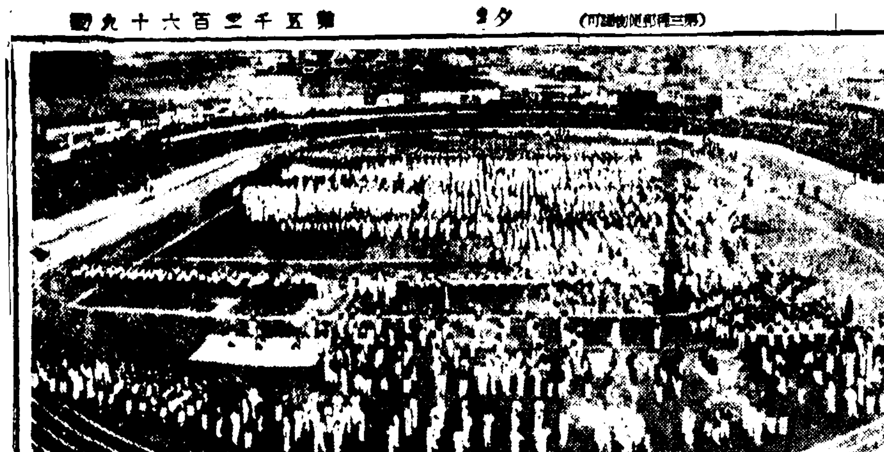
금번 수재에대하야 경무국에서 조사한통계에 의하면 경기、강원、황해、평북의四도를 통하야 사망四十五인、부상二十七인、행방불명四인으로 조사상이 七十二인이다.

그리고 가옥의피해는 ... 유실 ... 전파 ... 반파 ... 침수가 ... 합계 一만五천여 ... 일오후六시까지에 판명된것이므로 앞으로 조사의 진행에따라 ... 할것이다.

洪水被害狀況集計

(七月三十一日午後十時까지報告分)

道	人의被害 死者	負傷者	行方不明	計	家屋의被害 倒潰	半潰	流失	浸水	計
京畿	三人	二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六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世界유태人올림픽의偉觀！ 八月一日 ... 에서 開催된 ... 마카비大會 ... 十餘國으로부터 ... 五千餘名이 參加하야 大盛況을 이루엇다. 寫眞은 그 入場式의 一景觀이다.

庭球界의最高峯

日全本選拔軍來征에

三•四兩日間京城서二回戰

朝鮮軟式庭球聯盟의 招聘으로 全日本軟式庭球選拔軍 對全京城의 對抗庭球戰을 다음의 日程으로 行할터인데 全日本軍은 八日午前三時 京城着 하야리로 入京할터이며 全京城軍은 七月三十一日부터 新裝한 國際的의 京城運動場 코트에서 猛練習을 開始하엿다고 한다.

그런데 特히 본 巨擴張競技를 記念으로 當日 招待券을 二千枚 가량 發行하야 案內하기로 되엇는데 이외에는 入場料 三十錢씩을 現場에서 받기로 되엇다 한다.

八月三日午後二時 第一回戰
同 四日 同 第二回戰

橫濱高商野球來征

京城서二回戰

京城商業野球聯盟의 招聘으로 八月三、四兩日間午後四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橫濱高等商業學校野球部對 京城商業軍과 對戰을行할터인데 第一日은 對京商、第二日은 對選抜軍으로서 入場料는대 토則가 四十錢、普通二十錢、學生二十錢이라 한다.

法專庭球連勝

對全永興戰에이겨

法專庭球部 關北遠征隊는 七月卅日午後四時부터 永興優勝 코트에서 全永興軍과 右對戰 法專軍優勝하엿다.

【全永興】		【法專】
×(金甌元·朱源明)	―	(全輔烈·崔鳳來)
○(金容股·張明東)	―	(吳鎭·田陽秀)×
×(方昇柱·朴大範)	―	(太完淳·趙德然)
×(許英·朴忠權)	―	(姜英·朴永瑞)
×(李昌甲·金鍋俊)	―	(李正來·趙誠鉉)
【그라운드】		
×(金容股·張明東)	―	(全輔烈·崔鳳來)

普專對新京 滿洲人蹴球戰

◇…자세한經過

二十四日 午後四時 二十五分이되자 主審馬瀬、線審朱弘烈、申東北兩氏線審下에 普專對 滿洲國政府팀戰은 開催하니 當日의在留同胞의 應援은 우리같앗으며 게임은 원싸이드게임으로 終始되어 多數負傷者가 잇음에도 不拘하고 普專軍 五對零으로 勝利의月桂冠을獲得하다. 前半普專軍가어뜨로게임은開始되어普專軍맷바란에선소를 得하엿으나 成功치못하고七分에 이르러 政府팀골 키를 普專軍에서맹進하야CH金容植君RI 裵宗鎬君에게 패스하야 골에리어中에서 左足슈트로 一點을이엇다. 이리하야 政府軍팀은 반으며 猛烈한接戰을 繼續하다가二十一分에 普專RH李鍾順君 하프라인線上에서 LI吳在義君 에게올패스하여 吳君다시 RI裵君에게무무패스하야 두리볼해서 門前二米前에서 右足슈트하야 又一點을取하고 二十六分에 CF高順宵君RW朴義燾君에게 두스패스하야朴君中國드리브 右足슈트 하니 골 左隅에 걸이엇다 政府軍이때볼에 아주 七氣阻喪하고 兩軍一進一退로 前半三十分을 맞이다

沙里院體育會

三種大會

八月中籠•庭•卓球

【沙里院】 沙里院體育會에서는 例年과같이 八月中에 三大事業을 進行하기로 決定하고 방금 諸般準備에 奔忙한中이라는데 그種目과 規定은 다음과같다.

▲第四回西朝鮮籠球大會
時日=八月七日午前十時 (雨天順延)
場所=惠露高校코트
申請場所=沙里院體育會
申請期日=八月六日까지
參加金=每팀金一圓(中食提供)
賞品=優勝旗及旅費

▲第一回沙里院女子卓球大會
時日=八月十四日午後一時부터
場所=幸町小學校講堂
申請場所=沙里院體育會
申請期日=八月十二日까지
賞品=優勝盃、副賞多數

▲第三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八月廿五日午前九時부터
場所=朝鮮會社코트
申請場所=沙里院體育會
申請時日=八月二十三日까지
參加金=一組金一圓(中食提供)
抽籤方法=本大會서抽籤決定함
賞品=優勝旗及旅費

대盃決勝에

남은單式도米敗

【倫敦】 ... 發】 대盃決戰 英米戰은 英三勝의 뒤를이어서 三十日 單式三게임은 行한바 依然英軍이 二勝하야 結局英軍은全勝하엿다.

釜山→雄基間徒步 踏破隊兩君全谷通過

【全谷】 釜山一雄基間徒步踏破隊東京留學生 金裕山 李柱三兩君은 七月二十九日 午後二時에全谷에到着 一泊後鐵原으로向해떠낫다.

▲崔在祉氏 (東京留學生 ... 委員長) 今秋九月에 ... 全朝鮮中等校 ... 次入京、西大門 ... 에 ...

死傷者 外

裡陽署猛活動

反戰口警戒

【양양】 지난 二十一일부터 양양경찰서(襄陽署)에서는 ...

【대구지국전화】 경북 ... 項에있는 경북경찰부 ... 영자동사주식회사(慶北共榮自動車株式會社) 경북 二六八(호) 자동차는 지난 三十一일 오후六시 포항(浦項)에서 안동(安東)으로 향하는도중 ... 에 청송군 ... 면화개동 ... 단애(斷崖)부근을 지나다가 약 二백척이나되는 낭떠러지로 떠러저 승객중 五명과 운전수는 즉사하고 남저지 三명은 중상을 입엇다는데 이급보를받은 경찰은 현장에출장하야 ... 하엿다고하며 죽은사람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같다고 한다.

慶州郡 ... 金相根(二七)
同郡 ... 金鐘伊(二二)
英陽郡 ... 金錫伊(一六)
奉化郡 ... 金田伊(二)
京城府 ... 崔鐘石(未詳)
浦項 ... 金田伊(二)

斷崖에서自動車墜落 乘客等六名卽死

백척이넘는단애에서떨어지

浦項行自動車慘變

平壤과城津에

鐵道建設事務所新設

來十一日부터事務開始

철도국에서는 수년래숙안이든 건설공사의 실제적사무관계와 중앙과의 밀접한 연락을 기하야 각지방에 건설사무의 분할처리를 시키기로되어 三十一일부 총독부고시(總督府告示)로써 공포하엿다. 이것은 기전된 부산(釜山)철도사무소와 내천철도사무소에는 거기 ... 새로 평양과 성진(城津)에 건설사무소를 신설하게되어 오는十一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부과하야 각지방건설사무소 소관공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一、釜山鐵道事務所=東海中部線改良工事
一、大田鐵道事務所=慶全線建設四工區
一、平壤建設事務所=平元線建設十工區、滿浦線建設十二工區
一、城津建設事務所=惠山線建設十四工區、白茂線建設二工區

大量移民案

準備着着進行

移民會社設立에汲汲

만주의 대량이민안은 十일(?)에 만주이민회사(移民會社)를 설립하기로하고 재반준비를 진행하는가운데 예산관계와 기타를 중앙정부와 절충고저 전중(田中)외사과장이 저간 도동하야 관계각방면과 절충하는가운데있고 어러가지 의양해를 구하고 절충을하에는 총독부 외사과의 예사관계와 기타를 설명할관계상 외사과장은 이달 중순경 ... 로부터 양(楊)사무관과 금일오후三시 경성발열차로 중서(中西)을대동하고 급거도동하게 되엇다.

결국 이민회사안이 실현된다하야 예산상보조를받지안코는 사업을 진행할수없는형편이므로 금번 양사무관일행은 도동하야 특히예산문제에 ...

最近에頻發하는 處女의失踪

昨日에도 女生徒不知去處

市內에魔窟潛在？

부내 안국동(安國洞) 七十五번지 신필균(申弼均)씨의 三녀 수복(壽福)의 三번생인 신현숙(申鉉淑)은 지난 ... 일(一)이란 생도로 二十一일 오후八시경에 집을나간후 행방불명이 되엇으므로 소관 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한다.

그런데 동서에서는 최근 처녀실종사건이 빈발함으로 혹 유인마가 부내에 잠복하야 처녀를 유인하지나 안흔인가하고 방금 형사대는 총동원하야 그의 행방을 엄탐중이라 한다.

本社主催 巡廻講座

盛炎에聽客殺到

全州와 咸興서도 大盛況이뤄

普及되는高等常識

全州

【전주】 하기순회강좌는 예정과같이 지난三十일 밤전주공회당에서 개강하바 九十도를넘는혹서임에도불구하고 이번에 의 이영순(李榮淳)박사의 「면과수정이란위생문제외 김상용(金尙鎔)씨의 문학과 현대인이란 연제로 전주세시간의 열변은 三백여명의 청중을 도취케하엿는데 一시에 제一일의 강좌를 마치고 동三十一일밤에 역시동장소에서 관영완(高永煥)씨의 세계현세와 제二대전이란 연제를 비롯하야 윤행중(尹行重)씨의 경제강좌가있어 근래보기드문 성황을 이루엇을뿐더러 이강좌에대한 일반의기대도 자못컷다고 한다.

咸興

【함흥지국전화】 본사주최인 하기강좌는 예정과같이 제一일은 지난三十일오후三시 당지영신보통학교(永信普通學校)강당에서 개최되엇다는데 강사김두헌(金斗憲)씨는 윤리학의 변천이라는 연제하에 정인섭(鄭寅燮)씨는 세계문예사조(世界文藝思潮)란연제아래 만은수강생이 있엇다는바 제一일이나 二인이 선보二백여명의청강자하에 윤일선(尹日善)씨의 「의학의진보와지병예방에대하야」(醫學進步와疾病에對하야)라는제목하에 경제학연(經濟學的)... 사회발전(社會發展)이란 제목으로 ... 만은수강생이 있엇다는바 제一일이나 二인이 선보二백여명의청강자가 우승이에도불구하고 정각전부터 모여 끝까지 열심히 경청하엿다는데 이번이 처음인데 찬조하는 강좌는 양과를 합하야 성황리에 마치엇다는데 중전인물만흘 ... 라한다.

江原道水害

一日現在累計

강원도(江原道)의수해피해상황은 그후 조사중이던바 一일 다음과같이 경무국(警務局)에 보고가 잇엇다.

死者二二▲負傷者一八▲行方不明四▲家屋流失四五戶▲同全半壞一〇四戶▲同浸水五一三▲家畜流失四二▲田畓流失埋沒及浸水二、七八八町步(損害約十二萬圓)▲道路流失及決潰二〇一個所(六、四二八米)▲堤防流失八▲鐵道流失三個所(六百米)▲堤防崩壞流失六〇個所(一〇、二一八米)

鳳翼洞에棄兒

一일 오전八시경 부내봉익동(鳳翼洞)三十八번지 이중원(李重元)씨의 대문안에 어떠한자가 생후약一주일밖에 되지안흔 옥동자를 버린것을 그집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소관 종로서에보고하엿으므로 방금 동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府民用水量 最高記錄突破

一日、三萬七千九百立方米

水道課는對策講究

개일줄모르는 이지루한장마의 뒤끝을이어 기후는 의외로무더워저서 매일 수돗물(水道水)은 근래도를 가르치고잇게된 결과 대경성, 四十만부민은 완연히 열열지옥(炎熱地獄)생활을하게되엇다. 이와같은 더위는 더한칭으로부민의물에 대한갈망성을 격하게되어 지난 三十一일 하로동안의 경성부수도과 급수량은 三만七천九백三十五입방미에 달하야 최근 수년래의 최고기록을 작성하엿다.

즉 이기록을 작년도 최고급수량인 三만六천九백四十七입방미에 비하면 九백八十八입방미를 초과하엿으며 재작년의 최고급수량인 三만五천九백四입방미에 비하면 실로 二천三十一입방미가 초과하엿으므로 동수도과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 한다.

忠信學院

十週年記念式

【기보】 시내 숭신동(崇信洞) 충신학원(忠信學院)의 창립 十주년 기념식은 예정과같이 작 三十一일 오후七시부터 시내 종로중앙기독교 청년회관내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一주년기념식 一주년근속교원(勤續敎員) 표창이 이있은 뒤 아동의 상가유희(唱歌遊戲)로 폐회하엿는바 표창당한 교원은 현 원장(院長) 최성곤(崔聖坤)、교원 양희용(梁熙龍)외 二씨라 한다.

前津築港促進 陳情委員上京

當局도考慮를約束

직三十一일 오전十一시에 화남 종원군(洪原郡)전진어항축항기성회(前津築港期成會)의 대표자 박동규(朴東奎)▲윤하영(尹河永)▲韓成洙▲上田등의 四명은 총독부로와서 林재무국장과 도목과장、항만계장、등을 역방하고 전진어항수축할것을 진정하엿다.

동문제는 수년전부터 여러번진정하여온것으로 이의 수축을요구하는이유는 현재로는 어항으로서의하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평시라도 바람만 불면 어선을 매어둘곳이 없엇은 관계로 어선 가옥의 피해가 막대하다는것이다.

그리하야 축항에대하는 지원주민들의부담금으로 예정액三十만원중 이에一二五만원을 조달하고잇으므로 명년도에는 어기없이그를 기공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야 당국에서도 충분고려하야 선처할것을 약속하엿다 한다.

水橋、長淵線 松禾經由陳情

공사하기도 자못용이하다

◇代表等上京活動

황해도 송화군 ... 송화(松禾)사람 ... 그러고 직 三十一일에 도동하야 금정전정무총감과 전중외사과장 등이 금번에는 기어히 이민회사로 대량이민안을 목표로한 ... 이끝나면 一百萬명을 조선사람 만주이민안은 급속적으로 대량이민이 시작될것이다.

현재의 황해선(黃海線)은 수교(水橋)까지 가고있는데 부원간수는송화를 경유케 할터이라고하는 교로부터 장연(長淵)까지 부설하게되엇다.

그런데 이장연까지 식통하는선로를 송화(松禾)오천 뒤로하야가게되므로 송화경유를 종래로바라고 있든송화주민들은 사업철도로서의 본색을나타내고 그지방발전을 위하야 송화를 경유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하야 저간 여러서례를 도(道)와 철도회사와 정무총감에게 진정하바 잇엇든바 전기 두선을 비교측량키로 회사측에서 결정하엿으므로 송화주민대표 오원선(吳元善) 적목 기태랑(赤木義太郎) 송백순(宋百淳)등 三씨가 지난 二十九일에 상경하야 회사측과 철도국장과 관계각방면에 대하야 기어히 송화를경유하도록 진정하바 잇엇다. 이에대하야 관계 각방면에서도 이진정을 양해하고 될수잇는대로는송화를 경유케할터이라고하는 언명을 받고 동진정단은 돌아갓다하다.

이제 전기 두선을 비교할때 에는 공사(工事)관계에 잇어서는은 전경유식통을 하게되면 낙동대천이三개소와 남대천(南大川)가교등의 四개난공사가잇고 송화경유할때에는 거리에잇어서는 약三마일가량을 줄고잇으나 (해변노)소 밧에없어서 극히간단한것이오 一개소이오 조그마하다리가 三개 그외에 지방적관계로 본다하지라도역시 그러할뿐아니라 업무관계 즉 산물、비용、여객관계등이 모다 송화경유가 그게유리하다하야 그지방인들은 절대로 송화경유를 갈망하고 잇다 한다.

各地天氣實況

(七月一日午前六時)

中江鎭	上	霧
新義州	大	晴
平壤	大	晴
京城	城	晴
木浦	天	晴
大邱	大	晴
下關	天津	晴
東京	奉天	晴
新潟	大連	晴
雄基	上海	晴

天氣豫報

南方本州南上에있는 高氣壓의 一部는 南鮮方面에 張出하고 黃海及北方에는 不安定 하다 中部朝鮮과 南滿洲에는 ... 로 大陸에 ... 가잇다。

曇一時晴

昨日最高 三十二度一
最低 二十四度九
一日正午 二十七度三

外交員採用

外交에能爛하며奮鬪努力할自信잇는分은考査採用하오니履歷書를郵送하시오

但、一、中等學校卒業程度以上의資格을要함

京城府□洞二十二番ノ拾壹號

四海公論社編輯局

第三十期末貸借對照表 (昭和十年六月三十日現在)

株式會社湖南銀行

夏期 衰弱 虛弱 病後 恢復 療養 精力

農具各種 도바다發動機 報徳式稻扱機 아스다式精米機 鑛山用機械 合名會社 松田淸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支店 新京 奉天 釜山 大連

訃告 室人申氏가 無이 今年 二十三歲 ... 院 에入院治療中 不幸이 ... 七月三十日 午後三時 에 別世 하옵기 玆에 訃告 함 ... 梁□源 拜

學藝

文壇肅淸과 外國文學輸入의 必要 (一)

丁來東

文壇도 사람이 모여서 運轉하는것인지라 恒時 騷音이 남것은 勿論이겟으나 現今과같이 定期出版物이 貧弱하고 作品이 低級化하고 合評없는것으로 서로 相爭하는때는 아마 드물것이다。나는 以下에 肅淸되어야할것을 몇가지 적어보려한다。

첫재 文學을 一國的으로 解釋하여서 그에 벗어나는것의 作品、批評은 그저 멀어놓고 黑白과같이 앓며 文學以外의것으로 밀어내려고한다。그러나 文學의 範圍는 그러케 限定된것도 아니며 또한 그러케 限定되어잇으려고도하지안는것이다。이러한 主張을 가진사람은 흔히 文學을 統制하야 自派의 專用物로 私有하려고 努力하며

文人 을 兵卒과같이 一人의 麾下에 統率을 시키려한다。그러나 多方面의 人生을 表現하는 文學은 決코 一面的觀察에만 滿足하지안코 恒時박히어 잇는울(울)을 벗어나가는것이다。이러한意味에서 文壇에는大論戰이 일어나게되며 派閥이 잇게된다。朝鮮文壇에도 過去 一二三年과같이어러한 派閥이 惡하지는 안흐나 暗暗裡에 全然없다고 할수도 없다。그러나 現今에 이르러서는 理論은 抽象되고 現實의 關聯은 後退하여서 [illegible] 論爭等은 없어지고 한갓 [illegible] 文壇意識에 不過하다。今後 朝鮮文壇에는自然 內容이 없고 感情에 흐르는此等騷音이 肅淸될것이며 淸算되어야할것이다。

다음 에는 現在 刊行되며 잇는 文藝誌 或은其他 [illegible] 을 藝術하기爲하야 過去의作品을 再檢하다는것은 不當한바이다。作家의力量으로 본다면 現下二三文壇을維持할만은하나。그럼에도 不拘하고 相當한作品을 실지못하것은 作家에게 의뢰하여야할 [illegible] 幼稚子의 執筆으로因하야

各方 의作家를 網羅한 일것이다。이러한 事實을 알지안흘이아니겟지마는 現在文壇의 雰圍氣는 그러것을 網羅할餘地에 서지못하는 모양이다。그러나 朝鮮文壇에 不合이라도 關心하다면 [illegible] 이러한傾向을 排擊하여야 할것이다。

(同一한作家의것이라도 不滿足하게될만큼 作品의優劣이 잇다。우리는 이러한것을 볼때에 作家의良心問題로 疑心하지안흘수 없거니와

또한 作家 作品에 對한批評家의 待遇問題에도 原因이 잇다고할수없다。우리는 個個作品을 볼때 [illegible] 作品들은 同一한水準의것이라고는 생각지안커마는 그래도 어떠한 水準以上의것이어야 할것이다。그러나 그中에는 [illegible] 間或 섞여잇는때가 만하다。이것은 編輯子의 不注意도 잇것이나 [illegible] 作家의 選拔 [illegible]

旣成作家 或은 中堅作家라지가 그러한 雜誌에 실린作品은 無責任하게 쓴것이 적지안타。우리는 [illegible] 作家에 따라서 作品을 評價할수가 없고、雜誌에 따라서 作品을 評價 [illegible]

夢金浦滯雨 三首

无涯 梁柱東

予於七月上旬、來留夢金浦、時浴客尙少、海水微冷、未嘗入海一浴、而越數日、風雨大作、長霖經旬不霽、獨處海舍、無聊甚焉、鬱陶之餘、偶得七絶三首。(月廿五日 於朝鮮館旅邸)

一

海莊七月冷蕭蕭、風雨聲中對晩潮、隔岸人家渾不辨、漁舟午過第三橋。

二

金灣風景似西湖、越樣宛然倚畵圖、傾國佳人天亦惱、故敎濃淡暫糊塗。

三

文離淫雨襟風寒、浦上游人午夢闌、若把仏麽爲問處、百年苦雨奈人間。

評壇 에 있어 그 不振한것은 [illegible]

旅行과 紀行

偵察機

여름이되면 休暇를 利用하야 旅行하는이가 만타。따라서 旅行中의 見聞記로서 新聞雜誌에 發表하는이가 만타。이러한 紀行을 볼때에 우리는 거기서 무가지「타인」을發見한다。하나는 그旅行地의 自然과 風物을 接한 때의 自己의 印象과 見解를 加減없이 率直하게 나타내는것이오 다른하나는 그旅行地의 歷史와 地誌와 및 古人의 詩文을 引用하여서 거기서 얻은知識을 紹介하는것이다。이 두가지中에서 特히 後者가 만흔데、너무도 만흠은 우리를 보게 한다。元來 紀行에는 史蹟探査를 爲한 旅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紀行을 하게의 關聯하고 [illegible] 가 되어야 할것이니 이런 意外에 무거운 文字를 느낄 效果도 없을것이다。元來에 얼마나 만히 陳腐하고 新奇的인 紀行文이 耐者의머리를 散漫케하고 잇는가。이後에 우리는 紀行文에 散發的만 잇으면 미할것이고 그래도 古蹟을 무린 때에 山水를 찾는맘에야 어찌다할것은 없을것이다。그러나 自然과 風物의 印象과 見解를 적는것이니 이야말로 우리들이 紀行에 [illegible] 고는 하지 안는다 단한줄도 論壇함 없는것이다。이러한 紀行에서야만 우리는 事物하는 무엇을 [illegible] 오 따라서 이러한 紀行을 이어서야만 그自然과 風物이 더욱 빛나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紀行이 더 잇어야 할것이다。(끝)

技巧化하는建築美 滿洲서 보는 名物建物

遊滿雜記

奉天거처 山海關 (二)……申基碩

[illegible] 政權時代의 首都로서 또는 日露戰爭의 古戰場으로서 最近에와서는 滿洲事變의 發祥地로서 民族鬪爭의 戰場이엇으며 民族勢力의 繼承地이엇든것이다。奉天의 中央에 발을 드려노코서서 생각을 봄에 歷史의 자취에 놀라고

늘울멀리 滿洲의 曠野에 民族의 興亡盛衰에 대하야 생각하여 보면 이새 안든者 잇으리오。古代中世는 그만두고라도 近世資本主義의 發展은 滿洲로하여금 國際爭覇의 舞臺가되게하엿으며 奉天은 그中心地帶이엇든것이다。近民族은 朝貢시키고 中原을 席捲하는 淸朝의 발상지에도 金色이 燦爛한 三陵鳳凰樓는 當時의 榮華를 잇어 잇으며 今日 遊客의 玩賞物이되어 잇지 되엇는 國帳何收에 全力하는 民의 [illegible]

安奉線은 安東과 奉天을 經由하야 朝鮮、日本과 連絡하고 滿鐵線은 南으로 大連 北으로 哈爾賓에 連結하야 歐亞의 大幹線이 되어잇으며 奉山線은 山海關에서 北寧線으로 連絡하야 中國本部에 이르고 奉吉線은 一路北으로 하야 北滿의 吉都에 이잇으며 [illegible] 交通의 中心地가 되어잇으며 [illegible] 을 [illegible]

學良本邸 는 滿洲國立圖書館으로 변하엿으며 東北大學 敎舍는 日本兵營으로 化하고 있으니 人間盛衰 [illegible]

新刊紹介

▲化學工藝八月號 化學發達史、硬化ゴムに就て、優良カゼインの機械化法、石鹼煮の考察、×線寫眞の應用又は線の種類測定法、世界海運界の一瞥、其他 定價四十錢 發行所 東京市神田區 [illegible] 化學工藝社 振替東京二五〇一六番

▲運輸界七月號 過去十年間貨物の變遷、特別小口扱制に就いての說明、心田開發と運送業者等其他 定價五十錢 發行所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七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鷄の硏究(八月號) 愛知縣碧海郡安城町今岡社發行 振替名古屋一三一四番 定價三十錢

▼카톨릭靑年(八月號) 京城明治町二丁目一 카톨릭靑年社發行 振替京城二一三四六番 定價十五錢

▼朝鮮鐵道協會會誌(七月號) 京城古市町一四同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女流文藝

詩

나의都市 外一篇

毛允淑

一生의 光榮과 希望을 맛기고
이 때성의 熱情과 힘을
그信仰의 밝은 情人에、겨어뜨릿이
오직 하나 이 城砦에 없으리니、
빛이 가고、어둠이 깃드러도
이城은 내魂을 나혀주신어머니시다。

□

지금은 줄기찬 生長이 빼어
萬物의 花香이 퍼질때러니
살진 푸르한의 산(生)애이、
우리근본의 짧은 줄을 그을때러만、
내都市의 심장은 고갈하여
푸른 목끔만에 누워잇지안타。

□

내 오늘 젊음 바리우어
그門을 의사게 두다리라。

散亂한 바람이는 내都市의 품
움직이없는 내都城의 表情
두다려도 反應없는 그門에은
아아 이제 늙어엇던가? 病들어엇던가?

□

살틀은 나의 都城―
원망도 간청도 애원도
그에게선 아모 감촉도 받을수없는가?
苦惱를 품고 누운 무덤같이
파도에 밀려간 섬같이
東方길거리에 외로이 던저잇으니

□

病든 榮華를 담은 술잔과
腎寶로 흐르는 우슴 통곡이
하로에도 몇차레
生命의 品族를 製作하거늘

□

젊은사람아 남은 이까맘에누운이여
睡眠의 寢室안에서 몰아서라
光彩일흔 그눈
개쳐의 동냥좀뭇보러니
廢墟의 殘地우에 떠도는 사람들은
그숨결이 흐리고 고달퍼
사앙할수 없는 悲歌로
그魂은 하世月을 늙어간다。

□

城中에 사는 사랑하는이여!
그대몸과 魂에 문은
낡고 悲慘한 피를
땅에 通하江물에 흘려보내고
그회미한 눈동자의 윤파을
새벽 분수에서맑게씻고 나오라。

□

내 都市의 負敎를 씻기일
바다의 찬(冷)潮水여 달려오라、
번개여 東方에서 일거든
浮漂한 장식으로 그 魂을 식하고、
憂愁의 거리를 目的없이 헤매는
눈흐러린 사나이의 懷疑를 빼앗으라。

七月二日

밀밭에 선女子

熱氣에 [illegible]
明朗한 [illegible]

南部 高原의 하늘겨이
柔한 光明속에 미소한다。

고은 발자옥 소리
발사이에 사운사운
풍우리 흘린 젊은손
보라 맛다인 밀밭속에 사랑흡다。

밤은 어둠에 쌍겨
또 저편으로 떠오고
고개아、이랑으로、아가의 꿈길에
느스러이、송아지는 젖을 찾는데、

그 處女의 눈망、무럭무럭 머응은새
하늘 끝、명상의 門안에 선다。
장미의 語이、그얼굴에 피어나
한주름의 이야기를、듬듬때。

그는 저녁놀가 단장한
오리부 香水를 생각지안흐려니
밤이 倉로 자라가는 추수나라의 女人이여!
그대 世界의 모든美女보다 아름답고나。

塞所에서 듯든 新鮮의音響을
나는 지금 그女子의 心臟에서 듣노라
늙은 樹나무에 기대여
오랜 서름을 헤아리다가。

▼…寄稿歡迎…▲

本欄은 女流文壇의 振興을爲하야 特設한것이오니 文壇의 女流諸氏는 勿論이오 文藝를 修業하는中에잇는 女性、또는 文藝를 愛好하는 女性들은 만히 寄稿해주십시오!
詩、콩트、隨筆、短文等을

(海)(外)(學)(藝)(뉴)(―)(스)

탓소―나의三百年祭

알렉산드로·탓소―나의 死後三百年祭가 지난봄 모데―나에서盛大히 擧行되엇다。

그記念으로서 展覽된것은 탓소―나의 街頭이라든가 民族學的으로 再製된 그의衣裳같은것이 잇섯다。

이機會에 탓소―나의作에 對한 世評集이 두가지 出版되기로되엇다。그한개는「빼앗긴물통」이라는것에對한 世評集으로서 伊太利學士院의「쥬리오·벨토―니」의編이고 또하나는「風刺」에 對한것으로서「파우스트·비앙기」의 編著로된것이다。

曲目은 十七世紀의것、「아칸재로·코레루리」及「로마소·안·토니오·비타·리」의 作)과 現代(레스피―기作)의것이엇다。

六月一日二日의 二間 모데―나에서는 또 탓소―나의 三百年記念으로서「오트리·노·레스피―기」가 거느린 오케스트라의 大演奏會가 開催되엇다。

貧民工廠 (印刷、木工、油漆、籐織、瓦)

奉天의 見學에 잇어서 荒草가 우어지고 피비린내 아즉사라지지 안흔 北大營의 戰蹟이라든지 北陵法輪寺의 고요하고 한 男女交歡의 像이라든지 北陵의 華麗宋陵의 雄偉門이 모두가 遊子로하여금 거닐을 밉추게 하지안는것이 아니엇으나 모두그만 두고 漢民族의 民族性을 雄辯으로 말하는 同善堂 이야기를 하겟다。

同善堂은 約五十年前에 設立된 社會救濟機關인데 文明諸國의 그것에 比하야 遜色이 없을만치 完備된 施設과 歷史를 가지고잇다。事業으로는 育嬰、孤兒、濟良、蠶業、孤兒、棲流、救濟의 各部門으로 나누어잇고 附屬醫院과

[illegible] 의各科)이 附屬되어 잇다 [illegible] 東兒收容所로서 大路에 面한 壁에 아이를 [illegible] 事業이라는것은 東兒收容所로서 大路에 面한 壁에 [illegible] 門이라고 하다。救生門

己往事는 勿論이오 姓名外 지도 뭇지 아니하고 保護하야 一定한 [illegible]

奮鬪하는 人民에게서 稅金을 徵收하고 苛斂誅求를 하야 私腹을 채우는것을 爲主로하고 社會救濟的 施設 即人民의 福利를 爲한 施設은 생각지 안헛기 때문에 國家를 依賴할수없어 結局 自力으로 自身을 防衛하고 發展을 圖하게되는 까닭에 個人主義的이고 主義的傾向을 가지게되는것이다。太平聖世에도 帝力이 何有於我哉

우리一行 은 의特典으로 하야 四平街 [illegible]

跳躍運動 을 하는이 목라소울흐로는 [illegible]

同路各人題

二週間

張鉉七

子自에 듬어서면서 溫度는 자꾸 올라간다。

발서 夏期休暇가 왓다。七月十日부터 同月二十三日까지 二週間은 學生時代를 떠난後 처음 이어보는 나의 休暇이엇다。休暇만된다면 퍼 어듸로 나갈까 자취를 짓어 두루 [illegible] 나와 名勝地에 거닐다가 江邊에 몸을 부려 淸流에 溜足하도 또한 興味잇는일이 아니냐? [illegible]

이러케 생각만하여도 떡기뻣다 旅行과 探勝에 無限이 興味를가진 것이 마는 남보고려운만치 旅行과 探勝에 經驗이 엷엇다。이번의休暇는 機會를 일지안코 自卽하게 利用하리라 다른사람이 하단이나 우답에 마찬旅程을 나는 이二週間에 完了하고 다른사람이 하나 줄을 보고듣엇으면 나는 열이나 百을보고듣고 오리라。

「나는 이번休暇에金剛山으로兀 [illegible]

山을거처 돌아와보가하네」 希望과 歡聲에 넘치여 親友를 만나면 자랑삼아 이야기도 하엿다。

× ×

休暇前 一日 即七月八日! 社에서 執務하든中 突然히 나는 健康에 異狀을 느끼게 되엇다。

元來 病에經驗이적고 또病을이 나이니만치 病이突然히 發生되엇다는것보담 突然히 病을 느끼게 되엇든것이다。

그래서 나는 市內某醫院으로 向하엿다。博士는 親切히 맞어하다。診察이끝나자 病名은 자세히 일수없으나 如何間 腸胃의 일없으나 心臟에 異狀이 잇다는것 같다。

첫재 注意가 旅行말고、淸凉飲料水나、매운것、짠것、等刺戟性飲食物—同嚴禁、집에 누어잇고 每日 病院에와서 治療하여야하오 [illegible] 을 如一施行하야 經過가 좋으면 四五日에 完治되나 그러치아니하면 적이 憂慮됩니다。

이게博士의 말이엿다。이말은 이번나의計劃의 絕望的宣告가 될뿐아니라 病에 對하야 처음으로 恐怖를 느끼게하엿다。

아무리 생각해도 醫師말대로 日病院에 안다닐수없고 藥을먹고먹을수없엇다。四五日 지내면 病이 回復된다는 바람에 希여하는 明希望을가지고 그날그날을지나 四五日이 되어도 別差度를못보앗다。나날이 나타나는것은 新山과 맑은물이 더 욱 그리울 뿐이다。

더위에 더운물을 마시고 싱거운 飮食을 먹는둥 마는둥 좁다란마루에 자리를 펴고누어서 遲遲한 夏日을 보내자니 憂鬱과 煩惱는 不斷히 흘러나리는 熱汗을 짜내는것같고 훗김한바람은 靑春의 熱血을 녹여 蒸發시키는것 같다。

淸凉飮料와 刺戟性 飮食物은나의 第一嗜好하는것이 언마는 이各별이다。하로 이틀、이러케 苦悶과焦燥로 어느듯 아까운 二週間은 다지나간다。아무리 恨嘆한들 하번 흘러간 歲月을 다시 돌이킬수 잇으랴! 부질없이 꿈에 나타나는 프山과 맑은물이 더 할수 그리울뿐이다。

病의 苦痛이란 이러구나!—健康이란人生의 보배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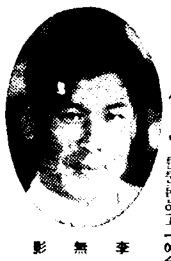
病들어 呻吟하는者에게서 起居의 自由와 口腹의 嗜好조차 빼앗어버리고 게다가 自然까지 感受을 하나 防禦할힘없고 晝夜의 區別이 없이 轉轉不寐 夢界에 逍遙하고잇다。

今年에는 다시 일어 보지못할이 休暇週間은 病苦週間이 되고 말엇다!

二十四日날!—今年의 처음더위엿다。病과더위에 시달려 疲勞하여진 몸을 끌고 東小門 턱에서버스에 올라 퍼로 향하니 아스팔트의 고약한 냄새와 暑氣는 몸시코를 찌르고 몸을 화끈거리게 한다라면 末然에 내가 健康을 못支켯드라면 하는 後悔!

또다시 손꼽아 오는 해의 休暇나 기다리자

長篇小說豫告



李無影

李馬銅

먼동이틀때

作者 李無影
挿畵 李馬銅

「作者의말」

장편을 쓰는것은 이번까지 네번째나 신문장편은 이것이 처음입니다。요새에와서 갑자기 내외를분간하고「예술소설의 통속화」를 부르짓는경향이 잇습니다마는 나는 이번의 나의 작품이 「통속소설의 예술화」라도 되어주엇스면하고 심소한때뭄이어다。결국말은 같은말이겟지마는 어찌지 이러게말하는것이 다라날구멍을 마련해 논것같이 마음이 듬직합니다。「먼동이틀때」라는 이롬도 평범하거니와 주인공격에속할 인물도 나는 평범한 사람을 택하엿습니다。그러나 평범한대신 오늘날 우리사회에 가장만흔 그러고 잇어야할 인물이 아닐가는 합니다。이 첫 시험을 앞두고 독자여러분께 아름다운말솜이나 낫가림이 아닌 솔직한 평을해주시어 나의 압길을 닥는데 큰 도음이 되게 해 줍소사는것 이외다。오직 이것뿐이외다。

「紹介의말」

만천하독자의 애독리에 본지에 연재중인 주요섭씨의 장편소설「구름을잡으려고」는 수일후면 끝나겟습니다。그뒤를 이어서는 이무영(李無影)씨의 장편창작「먼동이틀때」가 이마동(李馬銅)씨의 삽화와 아울러 연재되겟습니다。작자 이무영씨는 최근수년동안 소설、희곡등을 연하야 발표해오는 다산적(多産的)인 작가로서 한작품한작품에 더욱 빛나는 솜씨를 보여주는터이며、이미 본지에서도 중편「지축을돌리는 사람들」로써 한동안 독자여러분을 열광케한일이 잇거니와 더구나 이번장편「먼동이틀때」는 씨가 여러해를 두고 구상해오는것으로 통속소설과 예술소설의 중간을 걸어가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을대로 끄는 동시에 독자의 정서를 보다놓은곳으로 인도하기에 힘쓰리라합니다。이소설에 이마동씨의 예술적인 삽화는 그야말로 금상첨화로서 독자여러분의 앞에 나타날것이니 여러분은 이소설에대하야 기대를 크게가저도 결코 실망하심은 없을것을 미리 말슴해둡니다。

八月初旬부터連載

英國新心理主義文學小考 (11)

D·H·로렌스 (下)

◇……金永石

巨母에對한 觀念은 希臘神話에 서 大地를 어머니라고 한것을보면 希臘時代에도 잇은듯하다。巨母란 巨大한 保護者、生命賦與者 또는偶造者란뜻이다。프로이트가 母子關係를 性的으로만 解釋한데 對하야 로렌스는 子息이 母親을 巨大한 保護者로 믿는까닭으로 母親에게 保護를 받으라는 心理가 母子關係를 젓는다고 한다。「子息들과 愛人들」에서 이미 그例를 본바다。이 心理作用은 男子가 女性을 愛人으로 求할때에도 그대로 作用하야 愛人을 母性의 位置에 두라고하는 傾向이 된다。「子息들과 愛人들」에게서 그例를 보앗거니와「恋愛하는 女子들」에서 로렌스는 다음과같이 말한다。「그는 (어―슈러) 彈

得하고、所有하고、管理하고、支配하고저 하엿다。모든것은 그에게、女性에게、모든것의 偉大한 어머니(巨母)에게、歸屬되지안흐면 아니된다。그로부터 모든것이 出發하고 모든것이 結局 그에게 돌아가지안흐면 아니된다。」「그는 偉大한 어머니인 女性이다。그는 偉大한 態度로 取하게 되엇다。그는 偉大한 어머니인 女性이엇다。」이것은 主人公 버―킨과 그의愛人 어―슈러 와의 關係에 잇어서 巨母의 立場에서라고하는 어―슈러에게 對하야 한말이다。

그리고 로렌스는 性의 分裂에 對하야 다음과같이 말한다。옛날에 性이 存在하기 前에는 우리는混合되어잇엇다。各自은 混合物이엇다。個體로分裂되어가는過程은性

이 分化된 結局 [illegible] 生命의 [illegible]

視興만으로

―第一話―

飛石

六月中 보름、찌는듯한 炎天 子午線에 기처울하고잇슨 緊張한 모멘트!

諸君은 아쉬운대로 무엇을 想像하고 풍방우에 누운채、거니는방은 없고 或은 호미나 부삽 쥐어주고

視覺만으로—오로지 視覺만으로 저 숲이 하늘밑곤에든 一點의 구름만을 바라보라!

움지이는대로、먹은그대로、보이는그대로! 아모말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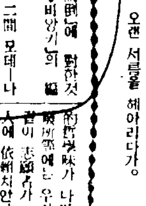
一秒—二秒 三秒 五秒 十秒……三十秒

그만

다시 [illegible]

[illegible]

오다라



八月一日(木曜)

▼六時三十分 童謠獨唱(一)지금성(二)꽃에맨심(三)자에서온새(四)꽃의노래(五)봉숭아(六)可愛鷹(七)思い出(八)상으로갈까 바다로갈까(九)夢車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夏季休暇中에注意할事項(二) 金鍵聲 殷

▼八時 國樂曲(一)世界萬歲 李世倧

▼八時三十分 歌謠(一)新羅(二)세타령(三)六字박이(四)

▼九時 [illegible]

八月二日(金曜)

▼午後零時五分 자스 DK자스밴드

▼二時 美國講座

▼六時二十分 하―모니카獨奏 李政熙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夏季休暇中에注意할事項(二) 金鍵聲

▼八時 國樂家族의現代(三)

▼八時三十分 라디오·드라마 金永翼·大野金永翼

▼九時十分 歌謠

▼九時三十五分 獨唱

▼九時五十五分 [illegible]

八月三日(土曜)

▼九時五十分 [illegible]

▼八時三十分 [illegible]

▼六時二十分 라디오學校 兒童 [illegible]

▼六時五十五分 [illegible]

▼七時 [illegible]

▼八時 [illegible]

▼九時 [illegible]

家庭

女性時論

人生의 片影

▽……崔貞熙

人生이란 宇宙의 主人인同時에 宇宙의 傀儡物이다。人生의 本質은 實로 精神文化의 高低를 따라 [illegible] 測定할수가 없는것이다。數字와같이 하나에 하나를 加하면 둘이된다는 一定한것이 아니오 좋은것도 아니오 제일수잇는것도 아니오 價値가잇는것도 아니오 또 그러타고 價値가 없는것도 아니다。따라서 社會의 公式은 [illegible] 풀수가잇지마는 이 人生問題는 모든 哲學者가 古來로부터 論議되엿지마는 풀지 못하는것이다。

人生은 무리봉우리라는가 暗礁(丑지바)같다고 어느분이 말하얏지마는 矛盾된 어린가 아 人生인것이다。이 人生問題는 文明과文化가 高度로 갈수록 풀수없는同時에 그를 人生의 矛盾도 漸漸 그 度를 높이어 가고잇을 뿐이다。

○

먼저 한개의 初期에 [illegible] 본다。이들이 처음에는 熱과 力으로 [illegible] 하다。그러나 一事業이 [illegible] 完成되기 [illegible]

밖서 內部의 紛紛하야 누가 무엇이라든 一步에라든가 [illegible] 를 부서버리나라 티각 [illegible] 가 싸운다。多少 [illegible] 步보다 [illegible] 도 할수잇으나 亦是 [illegible] 면 [illegible] 다。이것이 무슨 矛盾이냐。 그야말로 先何心 [illegible] 고 其外에도 이러한일을 [illegible] 對 容認치아니할 新興家庭의 破綻을 못는다。 [illegible] 하는 [illegible] 본다。

그러나 一事業이 [illegible] 이 [illegible] 心不及이나 [illegible] 命의 [illegible] 이 [illegible]

미解의 하나이라 할것이다。

○

또는 學問을 위해 사는 一派가 손으면 또한 [illegible] 그들이 [illegible] 人生에 對하야 [illegible] 을 받는다。그러나 다른 學派가 [illegible] 不 그들의 反對派가 잇어나면 無條件하고 그는 그르고 그는 [illegible] 하야 그를 憎惡하고 [illegible] 려 반다。그러나 그 反對派가 수 으면 또한 [illegible] 그를 [illegible] 하다。 [illegible] 하는 一派의 偶像이란 [illegible] 明瞭히 보이는 [illegible] 다。 [illegible] 우리 朝鮮學者에서도 [illegible] 이 잇지 아니하다。이 또한 [illegible] 矛盾 의 [illegible] 가。 [illegible] 로 [illegible] 하고 속으로 [illegible]

그나마 女子社會의 矛盾이 어린의 一面을 본다。이들은

가장 [illegible] 朝鮮女子社會의 先覺인체 [illegible] 하다。그러나 그들의 學問이란 學校時代의 理想이오 또한 그들의 理想이란 첫재 富裕한 家庭에 安逸한 人形을 꿈꾸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다。目的을 達하기에는 手段과 方便을 不顧하다가도 [illegible] 때는 도리어 反對方向의 [illegible] 어저서 可憐한 身勢를 悲嘆하게만 되는때도 잇는것이다。

○

勿論 이러한것들이 利害打算에서 온것이 아니나 하는 問題를 발할는지 몰으나 利害打算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라 人生이란 알수없는 矛盾行路를 좇을 나운 다니는 곳에서 [illegible] 되고 잇는것이다。(끝)

민간치료법 (下)

여름에 버리지 말고 꼭 알아 둡시다

죽을병을 치료해

여름철에 조곰만 수고 디리면 병나는것을 대손쉽게 고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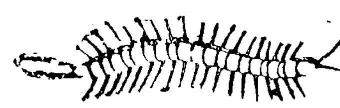
생손파상처에 반디불파, 지네

한동방(痛)는 생인손에 유명하게치는 약입니다。바파같이 개서 발라두면 속히낫습니다。여름에 만히잡아서 말려두면 어느때나 쓸수잇는것입니다。

지미라는 벌러지는 흔것에 한번 물리면 무섭게도 위태하다는 벌러지면서도 사람에게 여러가지로이로운 고충입니다。독한 소리에 물이들기시작할때 병아리 한마리에 큰지네한마리를 넣어서 약대리듯 대려가지고 짜서기름 七八개한하면 물이 마르고 녹한염이 전체가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약으로쓰는때는 적은것은 아모소용 없읍니다 푸른빛이나고 一면 [illegible] 툭 조흔것입니다。

지네한테 물리서나 상처가나면 위태하면서 물리고 상처난데지네 가약이랍니다 이상스러운 일이지오 가시에 찔렷다든지 칼에비어서 균이들어가지고 곪게되는경우에 취기름에 큰지네를 너허두고 이기름을 바르면 새살이나고 쉬사리 낫게되는 것입니다。귀에서 고름이나는때도 이기름을 약솜에

반디불



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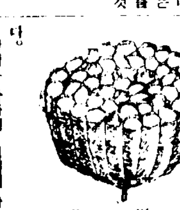
두뢰명석에는 벌새끼가 유효

벌새끼(蜂)은 아모약효가 없으나 벌새끼, 벌집, 꿀같은것은 여러가지약으로 씨우는것입니다。생종잇는이에게도 어린애들 시험전에 머이면 머리가 명석해진답니다。벌이잇는데를 알게되거든 벌집을 벌집고에다 영초(蜂蜜)를 대우면 같이러서 고지 못하게 될때 잡이다가 복아 머게합니다。

쳐시어 거에 키어두운 고름이없이지고낫습니다。또는생로 날부터서 터운에 이지베는 약에서도파는데 될수잇으면 새로벌린것이라야 효과가크니다。이것을사나가 가렵에서 허두면 두달중지변에는 형상은 그대로잇으나 지네의성분은 기름에 녹아나와잇으니 이것을쓰는것입니다。 부처두면 더고이없어서가두 [illegible]

강장제로는 살무사묘약

벌집은 까마게 태워서 가루를 맨들어가지고 술에타서 마시면 첫어 자나기도 합니다。



벌집

살무사(蝮)라는 뱀이 강장제로 [illegible]

살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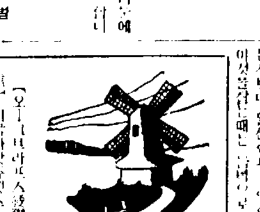
위니다。

살무사가잡히면 여서 말려가지고 내비에볶아서 가루를 맨드는것이니 사에가서살아오는것이 파는것보다 일신효과가 잇습니다。이것을잡는때는 살아가 五월에

뱀이한때나 八월이되어 겨울잠자는 준비기가 제일영양이잇는 때입니다。

가루를맨들어 몸이 쇠약해진때나 밥시고난한때나 폐병이나 신경쇠약증에 먹으면 효과가 보이는듯합니다。일주일에 한마리씩을 두수일에 한마리를 먹어야합니다 분량이만흐면 코피가 쏘아지게됩니다。나이 [illegible] 에 살무사가로 연분에다가 용안육(龍眼肉)열본, 기회 맞는, 정자(丁子)맞는 감초(甘草)맞는, 소주(燒酒)五합을 겨어서 살무사술을만들어먹으면 강장제로는특이효과가잇습니다

順風에 돛을 달고



海外異聞

제손으로 망친 아름다운얼골

[오스트리아 스파롤데郵信] 미국 바랑스빌스 주오-다 교스서에서는 를 근 프라트양은 평상히비인으로서 넓은 이사나이 [illegible] 사이에 비상히 인기가 조하섯다。그러나 보라트양의 유아자인 레스터에 [illegible] 는 저의 얼골(容)이 미운것이엇습니다。그래서 보라트양은 이것은 나의얼굴이며 무슨흉한것이 이에 레스터의 이 갈이 서성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이 보가는 뒤에 독약을 뭇어는 크가 현도칼로 1 아름다운 얼굴을 무사상하고 마무리고 떨어서 흉을내고 뜻을도를 햇습니다。그래서 병원에로 떠메여간 부라트양의 상처를보나 의사는 말하기를 수없이 난상처중에는 깊이가 것지나되어 급박(幹)에 까지 미치는것이잇어 지금같어서는 사러날가가 의문이고 만일사러나다고 하드라도 전과같은 아름다운 얼골은 다시볼 수없는 수없는것이 될것이라고 말햇습니다。그래서 레스터군은 너무 질투를 한것을 지금후회하고잇다합니다。참으로 미국에잇음반한 미묘와 (美貌美)의 일절입니다。(끝)

현대의학의극치

외과수술이야기 (外科手術)

시작은二천四백여년전부터

世專敎授 醫博 高明宇

외과수술(外科手術)은 무서운것이아닙니다。

질병하여 몸에무슨병이나서 병원을 찾어가게되면 먼저수부(受附)에서 각분과(各分科)로 안내한때에 외과병이면 외과로 가세됩니다。

무슨 조그만 약을만(冊) 머거나바르거나하여 낫기를기대하는 환자는 외과진찰을받으후 수술(手術)을 한시다 하는말을들고는 무서워하는이가 만습니다。

이미 수술을받어본이는 잠이해하지마는 처음으로 받게되는이는 옛날전장이의 칼맞은것만 생각하고 아픔것과 위험할것만 생각하여 수술은 받지못하겟으니 조른약을써달나고하는이가 만습니다。

외과수술은 조선또는 동양으로 논하고 서양에서도 古昔에는 없든것이오 지금 실험하는 소위 무부저(無痛的)외과 수술은 불과五十여년전에 시작되어 실행하여오는 최신과학적수술(最新科學的技術)중의 하나입니다。한방 의약(漢方醫藥)의 시작은 근五千년전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때부터 되어오섯이며 서양의학은 二千四百년전 히뽀크라테스로부터 비롯하여 비로소 서책(書冊)에나타난 것으로 다 상당한이면 여사지가 지고 진보하여 온것이지마는 지금 시행하는 외과수술은 현미경 발명하여 천배(千倍)이상을 확대(擴大)하여야 극히 미세한 세균(細菌)이라는 병원체(病原體)를 확인 가루하야하나게 보이는 [illegible] 인하여 또는 마취약을 발견하여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째를

갈을때에 환자가 알는것을 견디지못하여 죽는일이 흔하엿으나 수술중 감신이 견대엿으나 수제 수술중(術中)에 병원체가 들어가는것을 아지못하고 방비하는 방법을 행아지못하야 수술하상서 가 시나지못하고 고름이동며 상하는까닭이엇습니다。

지금은 이두가지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엇으므로 외과병잇는이에게는 이만한행복이 없읍니다。

——○——

사진(一)에보이는 환자는 금년 六十三세노인으로 三十五년 동안 그갈은혹을 얼굴에달고 단겻습니다 수일전에야 처음으로 병원을찾어나와서 고처주기를 청하엿습니다。

조선에 옛날속담으로 혹을떼러갓다가 혹을붙이고 왓다는말이 외같은환자는아마 남의일 이라고는 생각하지 안흘것입니다。

한일 혹을 떼인후에 잘안불지안흐면 어찌할가 또는 혹을떼일때 아퍼서 어찌할가하는 생각이 물론잇을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은 그런염려를 하시대는 아닙니다。여러말로 설명하는것보다 한번 수술을 받어보시오하고 국소마비 주사를 노코 혹을 떼여 환자의 손에반어들고 수술이 무섭지안혼것을 비로소 알엇다고 조하합니다。사진(二)에 보이는것은 그환자가 수술받은 즉시 얼굴에서 떼인혹을 두손으로 받어가지고 잇는것입니다。

이혹의 중량은 두근이나 되며 가로 노르기는 [illegible] 고 내장을 배인지라도 아른 줄로아지못하는 시기하 약이밥명 된 뒤에비로소 안전한수술을 실행하게되엿습니다。

외과수술은 이와같이 세계를통하여 새로운기술인고로 외과수술에대하야 잘이해하지 못할뿐노저 지안흘것이며 이해를 하지못하면 무서워하는것도 이상한것은 아닙니다。

하五一년전에는 수술을 하지못하엿다는것보다 수술의 주효결과 를어시못하 리우는 첫재마취약이 없는고로 다리를 잘르거나 배를

열고에대답고 다니기를 三十五년이라는 긴세월이엇고 그동안을 고통으로 지내엇은 다만수술이라는것이 무서운것인줄만알고 그같이 고생을하엿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혹은 양성종양(良性腫瘍)으로 생명에관계가없엇으나 어떤혹은 오래두면 악성(惡性)으로변하야 생명을죽이는일도 잇읍니다。

외과수술은 무서워할것이 아니오 외과병을고치지안코 두는것이 무서운것입니다。

家庭

蔬菜培養法

중국인의 재배법

(完)……金雄玉

四, 중요한채소배양하는법

맛잇는 채소재배관리의 대강과 양묘(養苗)하는방법에대하야 말할것이나 너머장황하겟든만 아니라 이렇것들은 책상위에서 말로만하야서는 이해가곤란할것인즉 생습이필요합니다。그러나우리가 지나(支那)사람들이경영하는 채소밭을 보면때에는 누구나 놀래지 안을이가없으니 그이들이 하는방식은 어떠한가 대강생각하여보고자 합니다。

첫재 땅을깊히파고 작일이나기 타거치른것을 곱게주서냅니다。

둘재 거름을만히합니다 땅을깊이파고서 거름을적게하면 작물은오히려 되지안습니다。

셋재 종자(種子)를선택하며 갑싼것은 쓰지안코 반다시 본산지(本産地)에서 종자를구입합니다。

넷재 채소작구기를 어머니가 간난아기기르듯합니다。발을다루기도그와같이합니다。

다섯재 시절을 따라서 재포에를 대기를 게흘니하지 안습니다 조선서는 비가 드문지방에서수분이대부분을 정명하고 잇는채소 를각궁집대는 절대로필요 하것입니다。

이위 다섯가지로서 능히그대강을 짐작할수잇으니 각가정에서도 이 같이 잘 정성스럽게하것이면 성공할수 잇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에 제일만히수용되는 외(胡瓜) 재배법을 말하겟습니다。

외재배법

하절에 가장만히 소용되는채소의 하나인데 비교적재배하기쉬운 것이 하나 [illegible] 외를 재배하기는 곤란한것이아니고 한번가정에서 외재배를 시험하여보면 [illegible] 것이라고 하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후와토질

외는 온화한기후가 조흐며 습서(濕暑)와 한랭(寒冷)을 실혀합니다。그러고로 한랭하거나 가뭄에는 외가 시든 소리를합니다。토질은 지저거리지 안는거름 진모래와 진흙이 반식석긴 곳이 재일적당합니다。

품종(品種)

대략 두종류로 구별합니다 조생종(早成種)과 대호과종(大胡瓜種) 인데 조생종은 조생(早生)이며 종자(豊成)적으로 흔히 재배합니다 대여섯째마디가지나서 는 각마디에 암꽃(雌花)이 피고 외가 매칩니다。대호과종은 만생(晩生)이고 대는실실하고 외가크나 수가 만치 못합니다。가정에서

파종(播種)

는 조생종이 마고비(肥)、강(?)、와(?)、왜오하리(尾張)、聖護院、등이 조선재래종과 그사하고 품질이 좃습니다。

파법(播法)곤 밭에파종하는것과 상(床)에서 양묘하는 상파법(床播法)곳은 두가지가 잇습니다。

상파법은 三월중순에 온상에파종하엿다가 수석모종하야 남이사오때 되엿을때에 큰 五월상순이나 중순에 밭에이식하는것인데 이는 기술을요하되 일주여 매가 여는리어이잇습니다。일반으로는 직파(直播)합니다 그시기는 사월하순(四月下旬)에 합니다。

파종하기 [illegible] 수일전에 두둑넓이는 이척오촌 내지삼척(二尺五寸乃至三尺)로 두둑사이는 일척오촌(一尺五寸)으로하야 깊이五六寸넓이의 둥근구멍이를 파고서 거름원비(元肥)를 너흔후 흙과석거서 구멍이주위로 돋더노코서 흙을두어서 그러모와 높이가 三촌가량되게 흙똥을 처놓것입니다 이런흙뭉가 一평에 十二三개될것입니다。그리한다음에 한뭉터이에 종자三四개를 뿌리고 흙을 얇

게덮습니다 약 五일후에는 싹이나오면 발에 가무뭉을 피면이없으면 싹이 납니다。그는데 四五五이면 싹이 남니다。그는데로 솎아내서 나중에는 그중 실상한것 하나만 남겨둡니다。十평에 일작(一勺) 의종자면 넉넉합니다。

거름(肥料)

원비(元肥)거름으로는 퇴비(堆肥)一관 깨묵(菜粕)七배몸 메재(草木灰)七배몸에 밥十평에 각구멍이에 나누어줄것입니다。

중거름으로는 잡며화합원비 양혹은 밭에빨허서 三四회에 나누어 줄것인데 분량은 인주 유산암모니아(硫安)를 대용하려면 二百몸메가량을 두네양쳐에 녹혀서 三四차에줄것입니다。

관리법(管理法)

외는 받침을 땅지면(地面)으로 뻗게하는것과 나무가지를 세워서올리는방법이잇는데 보통가정에서는 전자를 이용하지마는 면적이좁은 가정에서는 수수대를(高粱)비하엿다가 집웅모양으로 두이를올아올려서 세워서 넝출을올리게함것이면 종어수

수확(收穫)

파종후 일이고 꽃이피여가지고 十五일이면 외를따게됩니다。처음에는 줄이적어 번도 [illegible] 씨로 한 [illegible] 리적지안터라도 따면 [illegible] 다나야 한번은 크고조흔 외가 [illegible] 니다。한 [illegible] 에서 보통으로 五、六개의 외를 [illegible] 가 잇습니다。

외에는 「긴데기」이 잘 생깁니다。조흡야에 만습니다만은 간단한것은 담배 희인(뮤? 煙)를 석봉에 섞어서 [illegible] 을 살머서 [illegible] 에 [illegible] 따래비우 五천짜리 반개를 물에 풀어 녹혀서 사기전에 섞어가지고 식은다음에 (噴霧器)로 고루 뿌리되 三、四일을 격하야 수차할것이면 전멸됩니다。영양이 조케 각구면 지 빼를이 클 키지 안습니다。(끝)

紙上病院

이발충

【문】저는 당년 十八세에 남자이야요。만 야방에가서 상의하여 보시요。

(水原醫專病院金河洛博士)

안력이부족

【문】저는 금년 十九세이온데 三년전부터 눈이허미하고 정신이 청량하지못하야 二년전 안과에서 안경을 마쳐쓰고 또 작년에도 가라썻는데 금년에도 눈이 나빠저서 안경을 가려서 씀 형편이니 어떠케하면 이렇기생성할이때에 남과같이 눈이나빠지지아니하고 정신이 청량하야지겟습니까(慶一洞 K生)

【답】근시라고하면 물론 적당한 안경도수를 마처서 써야합니다 치료법이라는것은 별로 없읍니다 년년히 도수안경을 가려쓰신다하나자은근시며야하광선밑에 독서며 물건을 가깝게 보는 습관들은 주의하셔서 예방을하시면 매우 조흘것같습니다。

(赤十字病院眼科高永順氏)

빠이야니기는

【문】저는 十八세여자이온데 작년봄에 모련고 어떤일로 밤에 쪽엇습니다。그후 빠이 하는 가 밥니다。빗갈도 빨가타보서 펴젓습니다。특히 더운데신을 머으면 일층더 하오니 여기에 대한 약명과 치료법을 자세히 알려주옵소서。

【답】더러지안토록주의하시오。약은 바르면 입시적효력이잇을수잇으나 영구치료는 곤란합니다。내복으로 옥도가리가 써당합니다。(세부란스李容卨博士)

【답】당신의병은여치(齲齒)라는 병이니 그치료는 가정에 할수는없고 전문의게 수술을 하시면지당선치료를 하게하시요。

(세부란스 李榮俊博士)

허리가압허

【문】금년 二十三세된남자이온데 二월경본불어엇습니다 월전부터 다리뼈이 누근하고 허리가 압으고 몹이앎으고 줄리고 눈

【문】금년 十二三세된미혼남자이온데 한 十년전부터 사시합목금 하고 경편이나서 의복이 별걸 하야지고 아침가나서 못견디것 수잇으나 영구치로는 곤란합니다。

이왕으로 허바뿔이 물고 겹밥 수없이와 문의하오니 명백하하 표하야주옵소서 (苦悶生)

【답】방사(房事)가파도하가보이 더 일층영을 필요성이곤 그러더가 큰병에걸니기쉽지 통이영인표저어니주의하시오 (세부란스李容卨博士)

注意

「紙上病院」에 投稿하시는분에게

날마다 지상병원에 드러오는 질문에는 정작 [illegible] 합니다。그것은 정면한 문제만 여간한 질이아닙니다。그러니 보내시는 질문하시지만 독자여러분끈 다음의 몇가지만 꼭 지키시시오。

一、반듯이 엽서에 순한글으로 쓰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잔호를치고 한문사용을 쓸것

一、반듯이 병명(病名)을 간단하게 부칠것

一、봉투에다 증상과 한문자를 섞어서 쓰시것은 해답하지안음。

천하는내세상·수영끝에버둥버둥

貧婦記 (四)

朴魯洪 作 · 靑田 畵

노랑고무신을 신은 분어미의 발길은 자바자바 모래땅을 서것다。간난 누더운 송판은 머리에 이고 섯는니 만치 종종거름을 칫는 그의 거름이엿지만 빠르지는 못햇나。하번 나시 사방을 둘러보고 겨우 방우에 올라 수 느는 혁, 하고 숨을 헐럿다。

온은한 바람 소리마저 들릴듯한 밤의 고요함은 현리 아둑하게 보이는 시내에 종종 빽빽이 전등 불빛으로 인해서 더조용 한듯 싶엇다。그는 뚝을 내려 서서 시내와는 반대 방향인, 산밑, 자기집이 잇는 동리를 향해 부리나게 걸엇엇다。몇시호 뚫어스 마을와 초가집에는 불이 밝혀 잇는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다。오로지 어느만이 싸고 홀빤인 자기집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하천 논두렁만하 좁은 길을 거러서 건너편을

에게 남안하이 아주 사라저 없는 것은아니엇다。

가가야 방안에서는 부시럭거리는소리가 나더니 흥단불이켜지고 이어서 문이 약가열리며 광대뼈의 커치게 보이는 살두없는 대가리가 쓱 나왓다。

「어 분어미이 이거 어떠케왓시우 여 드러오시중 냉에 좀 서서 어거수고 「어구 언뉴 자ㅡ」하고 행대목은 문지방에세워노후 송판을보자수고했단 말을 더 보태고서앞서방안으로 들어갓다。분어미도따라들어스자 방안에는 커커하게 내세가 확하고 코를찔럿다。하나 그는 그냄새를 싫어하 마다가그것은오히려 그의집 방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아무것지도 안흐야쥐엇든것이다。

목수이나한지 향명도사기로만 든동산을 올려놋는데 노묘하게나무로까지만 [illegible] 다。벽에는 큰 칠판은 액자 [illegible] 이 걸려잇고 선반우에는 연장들은 목재가 노혀잇다。아모 [illegible] 다。아랫목에놓인 노란 [illegible] 는자주빗 깃을 달은 검정 어볼는 업듯 보면어느것이 깃인지 잇인 지를 모를만치 더러워서 어슴히게 시츠한이나、검은 거죽이나 거지반 색이 갈어져 잇다。행대목은 오목에 분어미가 안기를 기다려、

「그래 그런데 김서방은 그저그 모양이지유?」하고 우선 남편의 안부를 묻고는

「그참 별서 그러게 오래 알코 잇으니 허 그거참 그사람이 병에만 안걸렷서도 원 보는사람이 딱해서 그럴때가 잇다구 그참그 사람이 온대체 그게 얼마나 오래요 그참」하고 연하야 그참만찾는다。

분어미는 한동안 아무말도 없이 잇엇엇다。헐련 돈을 주엇으면 싫엇지만 행대목은 줌처럼 돈말생각은 없이 커다란 입을 버리고 빼드러진 누런 이빨을 번득이며,

「그래 요새도 밤은 음내 나가서 얻어다 먹으시우?」

그리고 분어미의 얼굴을 쌀그레미 보드니 웃음지머 웃은 향대모의 눈에 우습게 보타오르고 잇는것을 고요히 생각에 삼기는 분어미는 쫓겟다。

밤에 있는 향대복(行大木)은 [illegible] 수를 [illegible] 의 남자이고 조고만지 [illegible] 가 이르러 [illegible] 그러진 집까지 가시에 [illegible] 예어 지는 것이였다。그는 서 [illegible] 을 제 쳐 들어가서 송판을 내리여 방문에 노은며 가만히 방안을 향해서 인다 때엿다。

「향대복 집에 계시우?」

「누구여?」자지 안든가 보앗다。

「저요, 저。」

「누구, 거, 분어미이유?」

「야。」

여기서 분어미는 호래비인 향대모이 혼자서 사는 이집에를 아닌 밤중에 이러케 찾어온것을 생각하고 부끄럽고 불안스러워집을 깨달앗다。그러나 해제인가한 번도 도적한 송판을 이고서 한밤중에 이집을 찾어엿든 생각을하니 서상하야 지는것도 싫엇다。

보나도 대추에 항대모이 송판을 때여다가 주면 송판 한개에 아십 선을 주니고 하엿는것이고 또밤에 때여 오라고 했든것을 생각하 나 송판도적질을 하여왓대도 그리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또밤에 이러케 찾어 온것도 당연한일이 어니 는 많이도는것이엇다。그보다도 지금 분어미의 머리에는 오직 서 방에세 미음 한 그릇이라도 변변 이 게만도 하다 노에 데 있이 있엇다 애처러웁게 너머나 비참하 라누은서방이 아니던가。하나 그

南道旱騷와 西北水亂

大邱엔 殺人的暴暑
昨日에는 百度三分을 突破 畫十一時까지九十度

[대구] 전조선의 어느곳 보다도 가장 더위의 고도를 올리는 남국의 대도회인 대구에서는 최근에 와서 각일 일도의 증가를 보이어오든바 지난 一일에는 더욱 폭서의 위엄을 나타내서 시민의 사람마다 땀의 홍수를 겪고잇는데 온도로 보아 쉽게는 화씨 백도三분을 돌파하엿다。그리고 밤이 들어서도 오후十一시 시청 상의 온도 九十도五분을 올리고 잇어서 가는곳마다 더위에 지치인 비명을 듣게되는바 이것은 조선의 다른곳에서 볼수없는 대구의 독특한 현상으로 밤이되매 바람한오리 불지안고 무덥게 찌는듯이 더운 괴로움이 밤十二시가 지나서야 겨우 시원하여지는 것이 예년 대구더위의 특색이지마는 금년같이 야간에 九十도 이상을 돌파하기는 수년래에 처음이라 한다。

浦項도酷暑 [포항] 경북포항(慶北浦項)지방에는 장마(長霖)끝에 ……더위가 매일 백도가 넘어 근래 처음보는 더위라는데 게다가 수도(水道)사고로 단수까지되어 주민들은 고열의 바다에서 헤매인다고 한다。

靈岩에旱魃尤甚
既植畓赤地化
이종못한것이 천五十여정보
郡民이流離者續出

[영암] 二개월동안이나 한발이 계속하여 전남영암(靈岩)에 잇서는 …… 미시지만 하더라도 천五十여정보에 달하며 이미 심은것도 논바닥이 점점 균열되어 적지화하여 가고잇다고 한다。…… 먹을것이 업는 그들은 벌써부터 살길을 찾아 죽을 쑤어가지고 연명해 나가는 …… 여정보의 미시지에 대하여서 …… 대파할 …… 벌서 시기가 늦어가며 ……

球場市에도水亂
龍門川汎濫
용등선 철도도 불통되어
農作物被害도莫大

[구장] 평북구장(球場)에는 장마가 월여동안 계속하더니 二十九일부터는 호우가 쏟아지어 三十일 오전八시경에는 청천강(淸川江)과 용문천(龍門川)이 범람하야 용등선철도(龍登線鐵道)가 파괴되는 동시에 시가에까지 침수되어 一호는 유실되고 十호는 침수되엇으므로 소관 주재소(駐在所)와 소방대(消防隊)가 출동하야 배수에 노력한결과 그피해는 없으며 부근 一대의 농사들에도 피해가 판대하다。三十일 오전부터 불통되엇든 용등선(龍登線)은 복구공사중인데 三十一일에도 개통되지 못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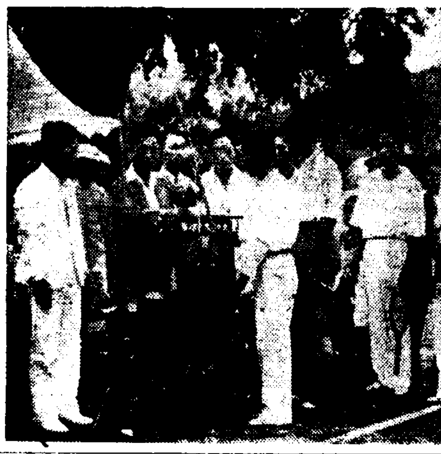
……線) 一봉도로는 사룡(山嶺)이 三十개소에 연장이 六百메-틀에 달하고 피해가 유실된곳이 一개소인데 이로인하야 교통이 전연두절되엇는데 목하 인부 수十명을 독려하야 복구공사에 주력중이라 한다。

一山牛市場

[일산] 오는 八일부터 고양군 중면 일산시장(高陽郡中面一山市場)에서는 우시장(牛市場)이 개시된다 한다。그 내용을 들으면 수년전부터 우시장의 설치에 다대한 노력을 하여 왓엇으나 설치를 보지못하야 유감히 생각하고잇든바 금년에는 일산시민의 열렬한 노력으로 지난 六월에 일산시장번영회(一山市場繁榮會)를 조직하고 우시장설치를 힘써오든바 드디어 오는 八일부터 일산시장번영회 주최로 고양군 중면과 고양군농회(農會)의 후원으로 대우시(大牛市)를 개시(開市)한다고 한다。

迎日吾魚寺 鴛鶴樓改築
羅女史特志로

[포항] 영일군 오천면(迎日郡烏川面)에잇는 오어사(吾魚寺)는 신라진평왕시대(新羅眞平王時代)에 창건한 고찰이오 명승지인데 건물이 퇴락되어 一반이 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바 동해면 …… 라인옥여사(羅仁玉女史)가 자진하야 금五백원을 내여 원학루(鴛鶴樓)를 개축중이라 한다。



吉州庭球大會盛況 [길주] 길주서 주최인 북조선 개인정구 제四회전은 예정과같이 지난二十八일 오전十시부터 길주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一六조 참가의 성황리에 개최되엇는데 결승전에는 양김조(兩金組)가 우승하엿다 한다。(사진은 우승기 수여식광경)

十六歲少女가 水中에서 火死
물드는 부억서 밥짓다가 揮發油暴破로慘變

[신안주] 지난 七월三十일 청천강(淸川江)이 증수되어 신안주원흥포(新安州元興浦)가 전부 수국으로 화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 수난중에서 화화로 참사한 소녀가 잇다。문화바에 의하면 당지 문상봉(文祥鳳)의 넷재딸 영화(榮花)(一六)는 당일 오전 九시경부터 각각으로 범람하여가는 홍수가 들안에까지 들어오므로 부억에 물이 들어오기전 조반부터 지어먹고 물과 싸워보자는 결심으로 밥을 짓고저 하엿으나 젖은 화목(火木)에 불이 붙지 아니하므로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질렀든바 폭발하는 불길이 처발하야 전신에 화상을 당하엿다。즉시 …… 당지 행운당(杏雲堂)의사의 응급치료를 받엇으나 원시 중상이엇으므로 동三十一일 오전二시경에 그와같이 불귀의 객이 되엇다 한다。

江東大同江에 妙齡女投身

[강동] 지난三十一일 평남승호리(勝湖里)앞 대동강(大同江)자강선 상구편 바위우에서 묘령여자 一명이 빽주에 투신자살한 소동이 잇다는데 그는 승호리서부(勝湖里西部) 김룡준(金龍俊)(二二)의 처 김성녀(金性女)(二〇)로 지난봄에 결혼한것이 얼마되지안어 빈궁한까닭인지 가정에 불화가 생기어 서로 말다툼끝에 지난三十一일 하오一시반경 전기 대동강으로 달려가서 그와같이 자살한것이라 한다。

高壓線에感電 墜落되자卽死
廿九日咸興서

[함흥] 지난 廿九일 오후四시十분경에 상통전화관에서 산수정으로 올라가는 도중 전주(電柱)에서 전기공사하든 대흥전기회사(大興電氣會社) 전공 함흥부 산수정(咸興府山水町)三정목七三번지 석주선(石珠善)(三〇)가 돌연 三천三백볼트 고압선에 감전추락하야 즉사한 참사가 잇섯다 한다。

沐浴하다가 少年이溺死

[김천] 경북김천군 금릉면백상(金陵面白上)리 김…… 남낙순(南洛淳)(一五)은 지난 二十八일 오후四시경에 동리앞 직지천(直指川)에서 동모들과 목욕을하다가 두길이나되는 물에 빠져서 무참이 죽엇는데 전기 낙순이는 금년봄에 김천소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야 재학중이엇다 한다。

利原鰮漁獲
전년의二배이상

[이원] 七、八월만에 처음보는 온어(鰮魚)총획수자를 이원수산지부(利原水産支部)에서 발표하엿다。그수자에 의하면 전년도의 지금에 비하여 二배이상의 수자를 나타내고잇어 어민은 생활여유를 보게되엿다 한다。

農校와病院基地代
萬二千圓또喜捨
농업교설립비 五만원기부한
特志家永同孫在厦氏

[영동] 충북영동군 영동면 계산리(永同郡永同面稽山里) 손재하(孫在厦)씨는 현충북도회의원(忠北道會議員)으로 상공회장(商工會長)과 금융조합장(金融組合長)의 요직에 재하야 교육사업과 지방발전에 정신불식 양방면으로 진력하여 …… 농업학교와 구제병원의 …… 기지대 一만二천원을 자진기부하엿다 한다。영동지방에는 …… 농업학교와 구세병원을 건축에 착수하리라 한다。

(사진은손재하씨)

淸川江增水 二十六尺餘
◇개시신 일시도불통해
安州邑內의洪水亂

[안주] 안주(安州)지방에는 수일동안이나 비가 나리던중 …… 청천강(淸川江)의 증수가 二十六척여에 달하야 ……

咸南山地帶 交通이杜絶

[함흥] 지난 …… 교통이 두절되엇다 한다。

小作人二十餘名이 地主家에殺到陳情
무리한소작료 감하해달라고
牟麥小作料過酷으로

[남시] 지난二十六일 …… 소작인 二十여명이 …… 지주 …… 에게 진정하엿다 한다。

小作人中某氏談 ……

地主代理黃連秀氏談 ……

朝鮮人村中心으로
統營市區大改正
시구개정 제三차 계획으로
總工費二十六萬圓

[통영] 통영(統營)읍에서는 통영시구개정 제三차계획으로 총공비 二十六만원예산으로 …… 조선인부락으로 중시하실 계획이라 한다。

南市小賣大會 [남시] ……

産業課員로 外上欲不給
永興産組困境

[영흥] 새로운방책이 없는한 영흥산업조합(永興産組)의 외상대금 …… 이에 조합원들은 저들의 불체면에 대하야 매우 분격하는 一방 그에론이 높은감에 따라 이번 조합에서는 지난七월二十九일 조합장 박한영(朴漢榮) 감사 정산영(鄭山永)양씨가 직접 동탁국을 방문코 전기산업과원들의 외상대금을 즉시 지불토록 엄중한 교섭을 하엿다 한다。

反戰日特別警戒
十餘名豫備檢束
平壤署는非常緊張

[평양] 八월一일 반전(反戰)데이를 앞두고 평양서에서는 지난三十일부터 부내 공장一대에 비상한 경계망을 펼치고 잇으며 예검속자가 이미 十여명에 달한다는바 만일을 염려하야 三十一일부터 一일까지는 더욱 엄중한 경계를 할터이라 한다。

江原道中部 麯子組創立

[춘천] 춘천(春川)화천(華川)양구(楊口)홍천(洪川)인제(麟蹄)五군의 주조(酒造)업자 一백六十명으로서 조직된 강원도중부곡자제조조합(江原道中部麯子製造組合)은 지난 三十일 오전十一시 춘천공회당에서 창립총회를 거행하엿다。출자(出資)총액은 八만원으로서 일구(一口)금액 五十원이요 총구수는 一천六백구로 되엇으며 조합사무소는 춘천읍(春川邑)에 두고 공장은 춘천과 홍천에 두기로 되엇으며 一년에 五천五백석의 소맥(小麥)이 수요되리라 하는데 一개년간 조합원들의 주조(酒造)석수는 탁주(濁酒)三만석 약주(藥酒)一천八백석에 달한다고 한다。

北鮮機業社 工場大擴張
年一萬疋生産計劃

[영흥] 다년 영주직인업에 경험을 가지고잇는 청년실업가 오영옥(吳泳玉)씨가 직수비로 북선기업사(北鮮機業社)를 창립하는동시에 그계획을 진행하야 금년부터 공장을 개설하야 월약 三백필가량을 생산하야오든바 그간호적에 감하야 금번다시 공장을 전의 二배로 확장하야 그만큼 공장생산을 증가하야가는 一방 시장주외취급도 여전히 계속하야 一년간에 약一만필의 취급을 목표로 ……

納凉地카메라巡禮

海州名勝 四美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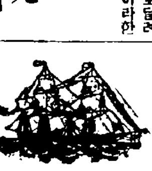
洪原幼稚園同情 音樂、歌劇의밤

◇日時 八月五、六兩日 ◇場所 洪原商務會館 ◇主催 在東京洪原留學生會 ◇後援 朝鮮、中央、東亞三支局

김영중이라하다。이에공장산품만해도 연一만필을 돌파하고잇는삼흥기업(三興機業)에서도 그에자극을 받아서 목하 대활약을 하여 중이라고 한다。

구름을잡으려고 (154)

作 朱耀燮 畫 李靑駒



구름 (十一)

어머니가 차자왓다。「어머님도 몹시 늙엇구나」하고 준식이는 생각하엿다。「어머니가 어떠케 미국을 왓을까?」아니다。지금 준식이는 고향에 잇는 초가집 아래목에 누어잇는 것이엇다。어머니는 팔레질을 왱왱하다。웃목에는 준식이가 앉어서 새끼를 왓삭 벗삭 꼬고 잇다。「경선이 말이지 그정면 참 똑똑하지。내크게 될줄 알엇다니까 경선이두 한때는 내밥을 먹구 갓는걸」하고 피연하가 연성 그동동한 불을 불쑥 거리면서 주절거리고 잇다。목사님이 어느새 머리가 하야케 세가지고 꾸부리고 앉어서 성경을 읽는다。등잔불이 벽지를 안타구 자꾸만 심지를 도두다。

「저러케 심지를 도두면 등피는 ……」준식이는 생각한다。아나 어머니는 어데루가섯나? 준식이가 누어잇는 집은 초가집이 아니라 고래풍같은 기와집이다。밖에서는 비일권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그는 돈을 헤이고 잇다。「신원、이십원、삼십원、사십원……」그런데 준식이는 땀을 흘리고잇다。방이 몹시도 덥다。아니 이게 웬일이야? 준식이가 누어잇는곳은 짚푸레기우이다。옆에는 꽹꽹이가 누어서 코를 곤다。그옆에도 또 꽹꽹이 그옆에도 또 꽹꽹이…… 아니 이 꽹꽹이는 무슨 꽹꽹이라구? 눈같이 싸하얀 침대들인데。간호부가 들어왓다。「미국은 일기가 조아서 아마 애기도 잇속 나오나봐」하고 간호부가 말한다。옆에는 순애가 앉어서 운다。준식이는 순애손을 만져보고 싶어젓다。그래도 선생님이 앞에 앉어서 똑바로 들여다보고 잇으니 참을수 밖에 없다。멀리서 어데서 이상스런 노래가 들려오더니 차차 그노래소리가 가까와진다。이런 반가운 일이 잇나? 그노래소리는 아리바의 목소리다。「아버지 아리바가 차저왓서요」하고 꾀미가 말한다。「아버지 나 아리바더러 ……」

…… 눈을 굴리엿다。머리가 허여케 센 …… 한분이 흰 양복을 입고 서서 준식이를 들여다보고 잇다。준식이는 휘 한번 둘러보앗다。침대、침대、침대들이 줄리리 노힌 병원안이엇다。뉴흔이가 친절하게 물엇다。「방금 꾀미라는 이름을 여러번 불럿는데 꾀미가 누굽니까?」준식이는 주저하엿다。「이것보시오 지금 당신은 매우 위태한 중태입니다。꾀미라는 이를 만나려면 지금곳 알리지를 안흐면……」준식이는 갑자기 꾀미가 몹시 보고 싶어젓다。

한게 사실레옹하면서 꾀미가 침대우으로 뛰어왓습니다。「꾀미」하고 부르려 햇으나 웬일인지 목이 꽉매켜서 목소리가 나가지 안는다。「꾀미야 그러케 아버지 가슴을 타고누르면 가슴이 답답해 못견대。아버지는 중상을 하셧는데」하고 간호부가 꾀미 팔을 잡아당긴다。간호부가 갑자기 성이 낫다。그래서 꾀미를 막끌고 나가려한다。「꾀미 꾀미」하고 준식이는 부르려 햇으나 목이 꽉매켯다。간호부가 도라왓다。준식이는 간호부를 똑바로 처다 보앗다。간호부 가슴에 잇는 커-단 단추가 뱅글뱅글 돈다。뱅굴、뱅굴、뱅굴 준식이는 빙그레 우섯다。「인제 정신이 돌엇군요」하고 간호부가 갑자기 영어를 한다。이때까지 조선말을 하든 간호부가 갑자기 영어를 한다。준식이 ……

社告

任平壤支局長 金庸植
任朴川江支局長 金榮晉
依願解職
今般右와如히弊社支局長을變更하엿삽기玆에謹告하나이다
昭和十年七月一日 東亞日報社

任江陵支局長 曹正煥
今般右와如히弊社江陵支局을設置하엿삽기玆에謹告하나이다
昭和十年八月一日 東亞日報社

鮮滿發賣元
ライオン號自轉車
高居瀧三郎商店 京城黃金町二丁目

能率絶大、馬力僅少、(實用新案)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合名會社 曾我商店 振替京城八九七番 電話本局二一六八番
新案特許 カンリウ式精麥機 農林省比較審査 最高甲位入選

값싸고 튼튼한광목 태극성광목

藥 卸問屋
營業所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 四〇九〇・一〇六八 四四〇三・四〇四八 振替京城一六〇番

지갑 혁대 製造都賣 安 服部商店 京城府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杉山商會 高價買入 杉山商會

朝鮮劇場 (光二八一番)
八月一日부터三日間 晝夜
사랑의하로밤
怒濤에騎士
戀愛

優美館 (光三九五)
女房大進軍
放浪旗本仁義

團成社 (光九五九番)
八月一日부터納凉大公開
魔海

八月二日부터
사랑의따젠트
大學의리合
お六櫛

經濟的으로본 에치오피아

輸出貿易品中에 獸皮、珈琲가 大宗

蜜蠟、麝香도 巨額輸出

◇輸出(續) (二)獸皮는 카피와 아울러 同國의 二大輸出品이다. 그 輸出額은(單位噸)

一九二〇年	六,〇八六
一九二八年	一〇,四五一
一九三四年	四,九七六

◇一九三四年輸出

牛皮	四,三六九
山羊皮	四八五
羊皮	一一七
毛皮	五

이어서 一九二八年을 頂點으로 減退의 傾向에있다. [illegible]

◇牛皮(一프라스라 約十七기로그람)四枚

北部地方	四、八五弗
西南部地方	五、三七弗

◇山羊皮(一〇枚)

西部地方	七、五八弗
北東部地方	一〇、〇〇弗
南部地方	一〇、〇〇弗
北部地方	一〇、〇〇弗

◇羊皮(一〇枚)

北部地方	六、〇〇弗
東部地方	六、五〇弗
南部地方	六、五〇弗

◇豹皮、[illegible]

[illegible]

粟輸入減少나 米移出은激增

凶作影響과端境期注文殺到로 細民生活威脅을實證

[illegible]

仁川港上陸 外粟輸入激增 一日에 一萬餘袋

【仁川】 [illegible]

漁組長期講習會

[illegible]

預金部資金 金組經由融通 高利債整理와 肥料代에配定

[illegible]

預金部資金 利率一厘引下

[illegible]

上海市場 日本商品取扱

[illegible]

內外市場에 貿易官駐在

[illegible]

春繭出廻 共販卅萬貫 原料는依然不足

[illegible]

八月分鰯油 朝鮮油脂에落札

[illegible]

東拓定時總會

[illegible]

[illegible]

(寫眞은 朝鮮銀行에서)

計數機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八月一日)

海外金銀(卅一日)

[illegible]

東京金銀(特建)

[illegible]

京城金銀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產業資本活動 八月時勢의一考

[illegible]

今日의市況

八月一日

株式(單位一圓) 正米(三等單位)

期米 商品

正租(仁川)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高寄後 前場再弛 弛緩

[illegible]

頭重更低 漫然悲觀만은 加前하警戒中

[illegible]

後場 合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期米 大下鞘 前場大下鞘 發會

[illegible]

後場低也

[illegible]

新甫大下鞘發會 百卅九丁下鞘

[illegible]

「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實物賣買價前為

[illegible]

新甫發會와 新秋米價觀

[illegible]

米豆餘墨

[illegible]

正米 各地商況

京城下放

[illegible]

仁川下押

[illegible]

南浦不變

[illegible]

木浦不動

[illegible]

大保合

[illegible]

釜山 堅

[illegible]

群山反落

[illegible]

各限後合

[illegible]

株式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illegible]

商品

[illegible]

期米

[illegible]

正米

[illegible]

大豆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